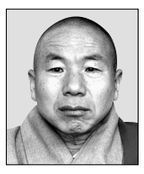
일 주 문



성역화기금 7천만원

향적 합천 해인사 주지 스님은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기금 7천만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해양경본 법당 이운

종연 인천 수미정사 회주 스님은 12월 15일 오전 11시 인천해양경비안전본부 해인법당서 증축법당 이운법회를 봉행한다.



다문화가정 초청 김장

탄웅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 스님은 12월 8일 경내서 결혼이주여성 20여 명을 초청해 '행복한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선학회장 연임

신규탁 한국선학회장은 12월 3일 서울 연세대 광복관 별관서 열린 한국선학회 총회서 회장에 연임됐다.



불교음악인 한자리 "가릉빈가 재림"

불교음악상 시상식 및 신작찬불가 연주회

상상의 새 가릉빈가(迦陵頻伽)의 소리로 불음을 퍼뜨리는데 공헌한 불교음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정안)은 12월 7일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제3회 불교음악상 시상식 및 신작찬불가 연주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불교음악상 시상식서 △최우수상 안승철 작곡가 '우란분재' △우수상 이윤정 작곡가 '팔상성도 이야기' △장려상 박이제 작곡가 '반월성에 뜨는 달' · 최선기 작곡가 '바라밀 범종소리' · 강주현 작곡가 '그리움으로 보내는 사랑' △노랫말상 곽영성 작사가 '반월성에 뜨는 달' 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승철 최우수상 수상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신심으로 펼치려고 작곡하던 중 까치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께서 '까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다' 며 작곡을 독려해 좋은 음악이 탄생했다"며 "국제포교사 21기를 수료하고 앞으로 불음으로 포교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올해의 불교음악인상은 이종만 좋은벗풍경소리 기획실장에게 돌아갔다. 이 기획실장은 1976년부터 42장 불음 앨범을 발표, 특히 매년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음반을 제작해 찬불가 보급에 선두주자 역할을 해왔다.

신성민 기자

"평생 영광이자 빚… 초심으로 정진"

Interview

제1회 법계문학상 대상 신이산 씨 소설 '푼다리카'

비구니 대강백 명성 스님의 불교문학 발전과 작가 발굴 원력에 의해 제정된 법계문학상의 제1회 대상 수상작으로 신이산 씨〈사진〉의 장편 소설 '푼다리카' 가 선정됐다. 가작 수상작으로는 김민혁 씨의 장편소설 '49일' 과 엄현주 씨의 장편동화 '산을 품은 아이들' 이 이름을 올렸다.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남지심)는 12월 5일 "공모를 통해 장편소설 13편, 장편동화 7편이 응모됐으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이산 씨의 장편소설 '푼다리카' 가 대상으로 김민혁, 엄현주 씨의 작품이 가작으로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상 수상작인 '푼다리카' 는 환속한 승려의 아들로 태어나 청각장애자가 되어 절에서 자라며 불화를 배운 주인공이 마침내 '아미타내영도' 를 완성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심사위원들은 "구성이 다소 고전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불교 미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불교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차분하고 정제된 문장으로 풀어냈다"고 평가했다.

수상 소감으로 신 씨는 "불교에 대한 글을 쓸 때면 늘 그렇듯 또 다른 구업을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두렵다" 면서 "법계문학상 수상은 평생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빚이다.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을 쓰는 것도 상을 받는 것도 모두 부처님 가피임을 알고 있다. 독자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한 폭의 변상도와 같은 소설' 을 쓸 수 있기를 언제나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가작엔 김민혁 · 엄현주 씨 선정
절서 태어난 청각장애 화공의
'아미타내영도' 완성과정 그려
12월 15일 운문사서 시상식

동국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두산동아에 재직하며 부사장까지 지낸 신 씨는 소설가로는 신인이다. 2008년 퇴직 후 평소 염원했던 소설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푼다리카' 는 자료 조사와 집필까지 약 2년 동안의 시간이 걸렸다. 불교미술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 직접 3년 과정의 대학 불교미술학과에 입학해 수학하기도 했다.

신 씨는 "불교미술을 1년 정도 배웠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탱화, 불화 등 시각적 이미지를 글로 표현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최대한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작으로 선정된 장편소설 '49일' 은 강원도 고성의 무당 선녀 씨가 죽은 뒤 49재를 지내기까지의 이야기를 복잡한 가족사와 연계해 다룬 작품으로, 문장이나 사유의 깊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씨는 "소설은 부처님 말씀을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며 "수행하듯 끊임없이 읽고 쓰리라 약속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같은 가작 수상작인 장편동화 '산을 품은 아이들' 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산골마을 종점슈퍼에 맡겨진 7살 여자아이와, 고아로 절에서 자란 8살 사내아이의 순수한 우정, 그리고 주지 스님과 이웃들의 자비를 다룬 동화다. 소재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정신을 어린아이의 맑은 눈과 생각으로 드러내려 한 점을 인정받았다.

엄 씨는 "법계문학상은 글쓰기에 지친 나를 위하여 특별히 부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라 믿고 심기일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법계문학상 시상식은 12월 15일 오후 2시 청도 운문사에서 열린다. 대상 수상작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이, 가작에는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작은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초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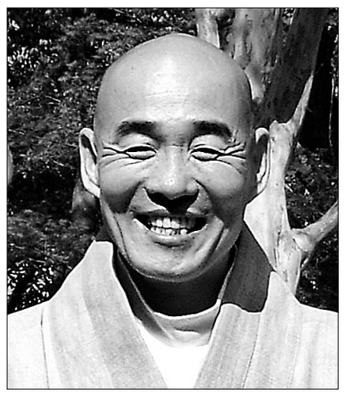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세 약해도 '나눔행' 으로 전법"

신임 조계종 인천사암연합회장 보명사 주지 성안 스님

"불교세가 매우 약한 인천 지역서 불법(佛法)을 널리 펼치기 위해선 '나눔행' 이 필수라 생각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의 본뜻을 이어 소외계층을 보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습니다."

제16대 조계종 인천사암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성안 스님(인천 보명사 주지 · 사진) 취임 법회가 12월 5일 인천 남동구 인천불교회관 2층서 진행됐다. 성안 스님은 이날 자리서 인천 곳곳의 소외 계층을 직접 찾아 나눔을 실천할 것을 포부로 밝혔다.



성안 스님은 "평소 결손 · 한부모 · 조손 가정에 공양미를 나누고, 탈북민 학교를 지원해왔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연합회 차원서 더욱 적극적이고 폭넓은 자비행을 펼치겠다. 역량이 된다면 복지관 위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교문화 포교에 대해선 "지난해 인천지역서 처음으로 '미추홀 연등문화축제' 가 열렸다. 지역문화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불교총연합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인천에 불교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 관리도 성심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성안 스님은 양산 통도사서 정우 스님(現 서울 구룡사 회주)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통도사 보광선원 · 수덕사 능인선원 · 백양사 운문선원 · 김천 수도암 등서 수행에 매진했다. 2009년부터 보명사 주지를 맡고 있으며, 15대 인천사암연합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총동림동문회, 어르신 경로잔치

남양주 먹갓경로당서 문화공연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회장 혜정)는 12월 6일 남양주 먹갓경로당에서 어르신 효잔치를 개최했다. 스님들의 하모니카와 기타 공연에 이어 총동림동문회는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돋보기를 선물하고 격려금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성사, 자비의 김장담그기

12월 3일 1200포기 성당동에 전달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화산)는 12월 3일 경내 서원당 지하서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행복 나눔 자비의 김장담그기' 를 개최했다. 이날 대성사는 김치 1200포기를 담가 전경태 성당동장에게 전달했다.

주지 화산 스님은 "김치 받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까지 담아 좋은 인연들을 지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기협, 불교기자상 시상식

12월 5일,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서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는 12월 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보현실서 '불기2560년 불교기자상 시상식' 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법보신문 남수연 기자의 '국립중앙박물관~' 보도가 대상을, 본지 '출가 자유를 향한 길' 과 불교TV '불교, 경제를 품다' 가 각각 기획해설 · 취재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윤호섭 기자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 도 모 집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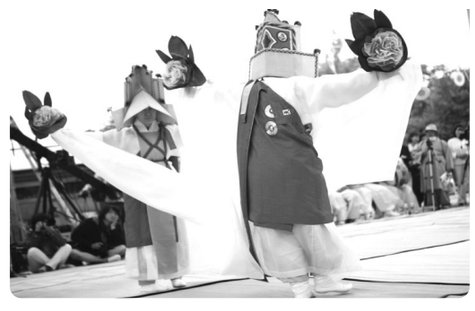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제11기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